



生活의 科學化를 爲한

매머드 現代 科學教室

나비 展示는 世界一品

= 國立科學館을 찾아서 =

今年 9月8日에 22년만에 復活된 國立科學館을 찾아 우리나라 學生들에게 生活의 科學化를 引導해 주는 實態를 살펴 보았다.

科學館은 1926년에 『恩師記念科學館』이란 이름으로 南山(現 中央放送局 자리)에 세워졌는데 當時 木造 二層 建物이던 倭城台 統監部를 改修하여 開設한 것이다. 正面 外壁에 潛望鏡이 있어 癖 印象의이던 이 科學館은 解放과 더불어 우리 政府가 引受 運營해오다. 6·25때 戰火를 입어 그 機能이 癱痺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에 政府는 國立科學館 再建을 決定했고 現 位置에 敷地를 確定, 總 延建坪 3,150坪의 現代式 5층 建物을 세워 現在 1, 2, 3, 층에 걸쳐 223個 品目을 展示하고 1972年 9月8日에 이르러 그 歷史의 開館태일을 朴大統領이 손수 끊었다.

그로부터 平日에는 約 千名, 週末에는 三千 餘名의 觀覽者들이 쇠도하고 있다.

여기에 展示된 것은 1층엔 주로 전기전자와 우주항공 제품들, 2층에는 물성 에너지 기계 화학 기상에 관한 것들, 3층에는 지질광업 동물 곤충 인체해양에 관한 品목들이 展示되었다.

과학관에 들어서기 전에 우선 비행기 환승기 시선을 끈다. 往년에 보라매를 길러준 訓練機 T-6다. 1층 전시관 안에 들

어서면 또 하나 켓트가 놓여있고 조종사 석에 學生들이 雲集해 있는 것을 본다. 6·25當時 共産側의 MIG와 싸워 勇名을 날렸던 「세이버」. 北쪽 사람들이 『색새기』라고 부르던 歴戰의 勇士이다. 그만큼 科學館 展示에는 空軍側의 協助가 至大하여 10餘點이 陳列되어 있는데 海軍側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한 듯(?) 10餘點의 展示品을 提供했다.

여기에 展示된 것은 海·空軍에서와 같이 自發的인 寄贈으로 된 것이 많은데 그 中 識者의 視線을 끄는 것으로 나비 박사로 알려진 李承模氏의 2천 餘點에 達하는 國內外 나비 展示品이 있다. 이승모氏는 自身이 수집한 7만5천여點 中에서 精選하여 昆蟲生物學에 趣味를 가진 好學者들에게 이를 提供한 것이었다.

科學館이 現代의 規模로 이 만큼 成長한지 日淺하여 外國의 有名한 그것과 비기기는 困難하겠다고 或者는 말하겠지만 科學館 當局으로서 是 專問的으로 이 展示 開拓 研究에만 精進할 엘리트 9名 科라 研究部를 만들어 遠大하게는 「플라네타리움」 建設까지도 目標하고 있으나 現在는 科學관의 소개와 P.R에 만 도 精성이 많이 든다고 한다.

여기서 研究部의 金德承部長의 말을 들어 보면.....

『우리 科學館에서는 우리 나라의 科學史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수집 展示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切感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나라 最初의 地圖라든가 最初의 汽車, 飛行機, 電話, 自動車 등을 수집하여 永久保存하는게 必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歷史的 價値가 있는 寶物들을 永久保存할 수 없는 곳에 오래 放置해 두면 破損이나 消失될 우려가 많을 것인즉 現 所有主와 잘 議論해서 國立科學館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意義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將來를 爲한 計劃事業으로서 企劃중인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 나라 產業界에 對한 새로운 科學技術 座標를 提示하여 주고자 產業技術展示館의 設立을 企劃하고 現在까지 基礎工事は 完了하고 二層까지의 骨造 建立만이라도 年內로 完工할 目標로 公사가 進行中에 있다. 그러나 科學館에 割當되는 國家豫算 規模가 年間 1億원 程度라 이것으로는 人件費와 維持管理費 및 研究助成費에 充當하기도 卽히 不足하여 隘路가 많다고 했다.

『生活의 科學化를 爲한 日日科學教室』 現在 科學館을 運營하고 있는 趣旨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電氣와 電子의 正體는 무엇이며 이들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影響과 實生活에 어떻게 利用되는가를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라든가 飛行機는 어떠한 原理에 依해 날고 우리 祖上들은 航空機를 如何히 開發해 왔는가를 寶物과 더불어 눈 앞에 보여준 것이라든지, 宇宙飛行하는 아폴로의 原理와 달 着陸까지의 過程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昌慶苑과의 通用門을 만들어 科學館에서 눈으로 배운 動物의 生態를 動物園에서 살아 있는 動物을 直接 對함으로써 比較 研究하게 함은 『生活의 科學化를 爲한 日日教室』의 大前提에 그대로 符合된 것이라 하겠다. 產業技術館까지 完成되면 名實 共히 『國民의 科學館』을 볼 수 있게 되리라.



全 相 根 國立科學館長



金 德 承 研究部長

